

실크의 역사 (1)

1993년 중국에서 새롭게 정하여놓은 "중국의 3조상(祖上)"이라고 하는 염·황·치·란, 농사의 신이라는 염제 신농(炎帝神農), 행정의 신이라는 황제 헌원(黃帝軒轅)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는 치우 천왕(蚩尤天王)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군주 중에서 기원전 3,000년경 황제(黃帝) 헌원(軒轅)의 왕비인 서능(西陵)황후와 그의 딸 누조(累祖=누자는 여자여 변에 累자)에 의하여 양잠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역시 중국 삼황(三皇) 중의 한 사람인 복희(伏羲)황제에 의하여 기원전 3,000년경에 뽕나무 잎을 먹인 누에고치로 옷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으나 여하 간에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중국에서는 양잠이 활발히 시행되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말엽, 은(殷)나라(기원전 17-12세기경)의 수도에서 발굴된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자에서 이미 뽕나무 상(桑)자, 누에 잠(蠶)자, 실 사(絲)자, 명주 견(絹)자, 비단 주(綢) 등을 나타내는 글자를 발견하였고, 또한 청동으로 된 도끼나 향아리 등에 쌓여 있던 형궤 조각이 견직물 조각이었음을 알 수 있어, 양잠의 역사는 더욱 올라가 기원전 3,000년 훨씬 이전이었다는 가능성도 있으며, 한편에서는 기원전 6,000년이란 설도 있다.

특히 1972년 7월에 중국 후난성(湖南省) 장사 동교(長沙東郊)에 있는 마왕 퇴한묘(馬王堆漢墓)의 고분이 발굴 되었는데, 장사국의 재상 대후리창(軫卣璘蒼)의 부인이라고 추정되는 여인의 시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고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발굴되었다. 여기에는 식기, 제기, 화장품, 악기, 의류 등의 부장품 외에도 능견(綾絹), 자수 직물, 얇은 사(紗)직물, 두툼한 비단 직물(錦) 등 오늘날의 직물에 손상 없는 정교한 많은 견직물이 나왔다. 이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엽인 기원전 3세기 말이라니까 놀랄만한 일이다.

중국의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양잠의 시작은 황하와 양자강 유역의 중·하류인 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야생의 누에를 모아서 실을 뽑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처음의 양잠은 황제의 딸이 우연히 야생 고치를 손에 들고 차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차 그릇에 고치를 빠뜨리고, 이를 젓가락으로 집어내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실이 풀려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실크 탄생의 기초였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여하 간에 그 후에 이것을 집안으로 끌어 들여 가잠으로 사육하기 시작하였고, 효율적으로 실크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개량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가잠의 형태가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한(漢)나라 이전에 이미 잠실에서의 양잠 방법이라든가 누에 알의 보관 방법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하며, 지금의 사천성에서는 유명한 촉금(蜀錦=촉나라비단)이 생산되고 있었다고 한다. 제민요술(齊民要術)이란 책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잠의 원리가 이미 이때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안에서 누에를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실을 꾸리고 직물을 만들게 되면서 이 견직물은 중국의 왕후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나, 기원전 4-3세기에는 지중해 여러 나라로 전달되고, 장안에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예전 지명)에 이르는 실크 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 (공석봉)

